

12th International IAHAIO Conference People & Animals : For Life

성기창
수의내과학 박사
학성동물병원
vetsko@hanmail.net



평소 아동을 대상으로 동물사랑 생명사랑 교육 실천과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에서 경주개동경이를 이용한 동물매개활동을 실시하여 장애아동 교육에 있어 정서적, 심리적, 육체적 효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동물과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살맛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보다 전문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경험과 세계적 동향을 보고, 느끼고자 International IAHAIO Conference를 다녀왔습니다.

IAHAIO(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uman Animal Interaction Organization - 인간과 동물의 상호작용 국제학회)는 AAA/AAT와 관련되어 1990년에 발족한 국제보건기구에 속한 공식적인 NGO단체로 매 3년에 한번씩 “인간과 동물의 유대”에 관한 연구발표가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학술단체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단체 또는 개인 및 우수포스트를 발표해 시상을 하며 미국, 영국, 일본을 포함한 20개국의 국가별 회원국(National Members)과 3개의 국제협회 조직기구(Associate Members), 13개의 산하 회원단체(Affiliate Members)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삼성도우미센터가 정회원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어 활동을 하고 있다.

12th International IAHAIO Conference는 People & Animals: For Life을 주제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7월 1일 ~ 7월 4일에 걸쳐 인간의 건강과 전반적인 사회생활에서의 반려동물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 및 그들이 주는 혜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얻고, 그 인식을 일반화시키기 위하여 HAB 분야와 관련된 전세계의 과학자, 전문가 그리고 학생들이 만나서 배우는 교류의 장을 펼치고, 새로운 연구를 발표하는데 목적을 두고

1. pet ownership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대중인식과 같은, 인간과 사회, 건강측면에서 반려동물이 주는 긍정적인 혜택에 대한 대중 인식 발달
2. 말의 중요성과 특히 EAT(Equine-Assisted Therapy)분야가 개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연구
3. 개인적이거나 일반적인 사회 등 모든 면에서 동물이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세계의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4. 관련 사안과 관련한 반려동물의 건강 등에 관한 정치적인 인식 증대라는 목적 아래 4가지

주요 테마(theme)

- Human Animal Interaction in General(일반적인 인간과 동물의 상호관계)
- Psychological effects of Human Animal Interaction(인간과 동물 상호관계의 심리적인 효과)
- Physiological effects of Human Animal Interaction(인간과 동물상호관계의 생리학적 효과)
- Animal Welfare(동물복지)에 관하여 4일간 열렸다.

이번 12th International IAHAIO Conference가 열리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일행(필자, 경북영광학교/창과동물매개치료센터 이예숙 교장, 서라벌대학 이은우 외래교수)은 6월 30일 오전 6시 50분에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들렀다가 10시 20분 홍콩을 중간 경유지로 지나, 방콕까지 6시간 15분의 비행 후, 스웨덴 스톡홀름행 비행 전 9시간20분의 공항대기 시간동안 방콕시내의 Siam Niramitr(사이암 니라미트)에 들러 타이민속마을 관광과 함께 타이민족의 문화유산과 신앙을 아낌없이 보여주는 창작작품으로서 무대에 올려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연극중의 하나인 Thailand's Must-See Show를 관람하고 쓰완 나뭇 공항으로 돌아와 7월 1일 1시 10분 비행기를 타고 다시 10시간 50분의 긴 비행 후, 7월 1일 오전 7시(스웨덴 현지시간-한국과 8시간 시차가 남)에 스웨덴 스톡홀름 북쪽의 아를란다(Arlanda) 국제공항에 도착 할 수 있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기온은 우리나라의 초여름과 같은 날씨와 청명한 하늘, 신선한 공기, 아름다운 자연경관, 차분하고 조용한 도시 그리고 여유있는 삶이 느껴지는 이 곳의 문화가 주는 특별한 소박함이 편안함으로 다가왔다. 우리 일행은 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로 30분 거리의 스톡홀름 시외버스 주차장에 도착한 후, 우리 일행의 숙박지로 학회에 등록된 Tegnerlunden Hotel까지 택시로 이동하였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현지 지리에 미숙한 탓으로 그곳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호텔이었다.



스웨덴 해안가



City Conference Centre의 등록 및 접수

다녀왔습니다

12th International IAHAIO Conference가 열리는 City Conference Centre에서도 가까웠던 Tegnerlunden Hotel에 여장을 풀고 Conference장인 City Conference Centre로 이동하여 등록 및 접수를 확인하였다. Conference 장소는 조용한 가운데 아주 소박하게 부스들이 설치되어 참가자들이 AAT/AAA의 홍보자료를 마음껏 볼 수 있었다.

우리일행은 호텔앞 노천 식당에서 점심식사 후 Opening Ceremony에 참석하여 반갑게도 우리나라의 삼성도우미센터 정동희 과장, 보바스기념병원 의료사회복지사 김태연 실장과의 만나게 되었다.

12th International IAHAIO Conference는 스웨덴을 비롯한 26개국에서 약 60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가까운 일본의 경우 50여명이 참석하여 IAHAIO 2007 Tokyo에서 11th International IAHAIO Conference의 개최국으로 나름의 AAA/AAT 관련된 자국의 위상을 과시하였다.

지난 3년 전, IAHAIO 2007 Tokyo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필자와 경북영광학교/창파매개 치료센터장인 이예숙 교장, 서라벌대학 이은우 겸임교수, 삼성도우미센터의 최윤주 이사 및 이주연의 2명 등 7명만이 참가하여 우리나라에서의 AAA/AAT 관련단체 및 관계자의 더 많은 참석이 아쉬움으로 느껴졌었다.



필자, 이은우 교수, 정동희 과장, 김태연 실장,
이예숙 교장(좌로부터)



대만동물매개치료협회장 Shirley Chen,
이은우 교수, Keiko Yamazaki 선생님

12th International IAHAIO Conference는 4일에 걸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전에는 전문가에 의한 전체강의인 인간과 동물의 상호관계에 있어 심리학적인 측면, 동물과 동물 복지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9개 Plenary session들이, 오후에는 4개의 주요테마 즉, 다문화적인면, pet-owner의 애정적 측면, 개들과의 신체 활동 등 각 연구자의 연구발표 및 사례발표 20개와 AAI(Animal-assisted intervention)의 표준, 사람과 말의 파트너쉽 등에 대한 12개 Special session이 4개의 강의실에서 이루어져 각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선택하여 자유롭게 강의와 발표를 들을 수 있었다.

이번 Conference에서 가장 관심있었던 분야는 먼저, 동물이 개입된 모든 활동과 치료들이 인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으며 이렇게 유익성을 따져보는 연구가 결국에는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것에 귀결되어 실용화 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즉, 동물이 우리 곁에 있기만 하여도 좋다는...



IAHAIO Conference 강의현장

12th International IAHAIO Conference 3일째 저녁에는 Gala Dinner가 실내 박물관인 바사박물관(Vasa museet)에서 있었다. 유르고덴 서쪽에 위치한 바사박물관(Vasa museet)은 침몰한 바사호를 우연히 한 개인이 발견하게 되어 그것을 각고의 노력 끝에 인양하게 되고 역사적 고증을 거쳐 복원한 것으로 17세기 선원들의 생활 문화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해양 고고학의 위대한 업적의 산물인 스웨덴 황실의 호화전함 바사호가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였다.

이 곳에서 IAHAIO 회장인 Prof. Dr. Dennis C. Turner의 환영사가 있었고 이어서 다음 3년 후 2013년, 미국의 Colorado Denver를 13th International IAHAIO Conference 개최지로 선포하면서 각국의 AAA/AAT 관련자들의 친분의 장이 마련되었다.

특히 아주 사교적이었던 대만의 동물매개치료협회장인 Shirley Chen과 미국 Delta Society 아시아지역 교육관인 Ms. Keiko Yamazaki선생과도 만나 앞으로 펼쳐질 많은 국제 행사에서 단결된 아시아의 힘을 보여주자고 다짐도 했었다

또한, 우리 일행의 옆자리에 앉은 UCDAVIS 수의과대학의 인간과 동물의 상호관계와 동물 행동학 교수인 Lynette A. Hart, Ph.D 교수 부부와 프랑스에서 온 Lyon 여사와의 매개치료와 한국에 대한 인연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다음기회에 다시 만나길 약속하기도 하였다.

이곳 바사박물관에서의 저녁 만찬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문제로 과거 우리나라의 고궁에서 만찬 후 사회적 비난여론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와의 문화적 인식 차이를 이해 할 수 있었다.



Dennis C. Turner IAHAIO 회장과 함께



Lyon 여사와 Lynette 교수부부와 함께

Conference 일정 중에 우리 일행은 짬을 내어 Stockholm 시내에서 오슬로 방향으로 택시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HSB Omsorg 노인요양시설(nursing home)을 방문하였다.

이곳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동물들이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자유롭게 주위를 다니며 노인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격려하고, 동물들이 미소를 자아내게 하여 서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유도하여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더 활동적인 역할을 가지도록 자극하여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의미있는 존재감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이었다.

이곳에서는 지난 10년동안 노인들을 돌보는데 동물들을 이용하였으며 주변의 개, 고양이, 물고기 그리고 새들을 데려오기도 하였으며 때때로 피크닉이나 페스티벌 동안 말이나 양과 같은 동물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하였다.

현재 이곳에는 8마리의 개가 있어 노인들의 삶의 질을 증가시키며 돌보는데 이용되고 있었다.



HSB Omsorg Nursing Home 실내



HSB Omsorg Nursing Home 관계자와 함께

또한 Conference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읍살라지역으로 이동하여 일본에서 온 AAA/AAT 관계자들과 함께 The Caredog School의 Ingeborg Hook(잉거보크)교장의 동물매개치료 시연을 볼 기회를 따로 마련하였다.

Ingeborg Hook교장은 정신과 간호사로 케어독 스쿨의 교육 매니저를 겸하며 수년동안 노인간호와 약물 남용치료에 일해 왔으며 미국의 텔타 소사이어티에서 지도자 자격을 받은 개 훈련사로 The Caredog School 즉 도우미견과 함께하는 전문 훈련학교를 스웨덴 정부지원을 받아 핸들러 양성과 개의 훈련학교를 운영하고, 자격있는 건강관리 전문가 교육모델로 인정받아,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08년에는 20케어독 팀, 2009년에는 30팀을 배출하였고, 2010년 현재 전반기에만도 40팀이 자격증을 받았다고 작은 자랑을 늘어 놓았다.

이곳에서는 동물매개치료도우미견의 올바른 선택 기준과 핸들러와 개의 훈련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양한 시연 프로그램도 선보여 주었다.



Ingeborg Hook 교장과 함께

다음날 우리 일행은 Stockholm 시내 관광을 위해 Hop-in Hop-on이라는 2층버스를 타고 북유럽 최고의 건축미를 자랑하는 왕궁도 보고 그곳을 지키는 잘 차려입은 멋진 호위병을 배경으로 사진도 한 컷 찍었다.

발틱해 연안의 무수히 많은 섬들 사이를 배를 타고 누비며 때마침 여름방학에 늦은 시간까지 물놀이를 즐기는 귀여운 아이들과 요트를 타고 있는 가족의 일원으로 구멍조끼를 입은 체 딱하니 버티고 서있는 개들이 인상 깊었고, 12세기부터의 건축물들이 남아 있는 구시가지를 도보로 걸으며 그곳의 정서를 감상 할 수 있었다.

스톡홀름은 가장 선진화된 복지정책을 가진 진보적인 도시였지만 전원적분위기도 함께 느낄 수 있었고 일단 도시를 벗어나면, 스웨덴의 어디서든지 아름다운 숲과 평온한 풍경들에 둘러싸여 그림으로만 보았던 전원적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

■ 다녀왔습니다



발틱해 연안의 유람선에서
이예숙 교장선생님과 이은우 교수



Skansen에서 이예숙 교장선생님의 망중한

7월, 스톡홀름의 월 평균 기온이 20도를 크게 웃돌지 않아 쾌적하기 그지없었고 과학책에서만 공부하였던 해가지지 않는 백야를 경험해 보고 지금 쯤이 북유럽을 여행하기에는 아주 좋은 계절이었다.

세계최초의 야외박물관인 스칸센(Skansen)을 둘러 스웨덴 옛생활도 체험해 볼 수 있었으며 그들의 주거문화와 생활문화가 지방별로 꾸며 놓아 눈을 확인하고 전역에서 온 전시물을 둘러보면서 사뭇 다른 목가적인 환경이어서 여느 시골처럼 푸근한 기분이 느끼고, 동물원, 수족관, 입업전시관, 담배박물관도 그곳에서 둘러보았다.

더 많은 시간이 있었다면 주변국까지 둘러보고 올 수 없었음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스웨덴의 IAHAIO Conference는 우리가 참석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지리적여건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AA/AAT 활동에 대한 불타는 의지를 품고서 국제적인 동향들도 보고 새로운 문화도 체험해 봄으로서 매우 유익하고 뜻 깊은 시간이었다.   